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음 4월 3일) 제17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개막식이 27일 전주 영화의 거리 전주동에서 열린 가운데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 남규리, 박해일, 하지원, 장혁, 수애(사진 왼쪽부터)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포토라인을 갖고 있다.

5.9 총선 대선 D-11 후보자들의 '1호 공약'

## 표심의 초점 '제각각' 실현가능성은 '글썽'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후보에게는 전략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건 1호 공약을 보면 표심 공략을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일자리'를 핵심으로 '대한민국'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담겨있다. 문 후보 측은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원에 대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9,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일자리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각오도 밝혔다.

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 1호로 삼았다. 안 후보 경우 이번 대선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주요 지지층으로 중도·보수층을 겨냥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공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해군과 공군전력 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완료가 제시됐다. 안보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을 계획했는데, 5년간 10조원 가량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방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40석이라는 의석규모와 함께 다른 정당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약 1호로 내걸었다. '육아 휴직 3년 제도'를 대표적으로 내세웠다.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차레로 나눠 쓸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휴직 수당도 월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웠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심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라고 못박기도 했다. 그렇지만 6명에 불과한 정의당 의석으로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유럽 등에서는 각각의 대선후보 확정 수개월 전부터 후보 정책 공약집이 나온다"며 "이에 비해 이번 '조기대선'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열리게 돼 공약 가운데 일부는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용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 열흘간의 시네마나들이

도전적인 작품들이 유발하는 논쟁을 통해 영화문화의 해방구를 만들어 갈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27일 오후 7시 전주 영화의 거리 내에 위치한 '전주 돔'에서 영화제 개막식이 열렸다. 이상용 프로그래머와 박해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김승수 전주시장(조직위원장), 영화배우, 관객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의 개막선언으로 전주국제영화제는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으며, 축하공연도 함께 이뤄졌다.

**Jeonju Intl. Film Festival**  
관객 12만

‘영화 표현 해방구’ 내세워 전주 돔서 화려하게 개막  
레드카펫서 배우 박해일 하지원 등이 자리 빛내

이날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배우 남규리, 하지원, 김지미, 정은채, 박해일, 수애, 오달수, 장혁, 류선영, 이세영, 서갑숙, 이일화, 장미희, 오광록, 손수현, 이영아, 양익준, 고원희, 전석호, 소이 등이 자리를 빛냈다. 개막작으로는 일디코 엔에디 감독의

영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이 상영됐다. 작품은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으로,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운 여자와 모든 것이 익숙하고 권태로운 남자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총 58개국 229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상영작을 필두로 클래스 이벤트·전시·공연·부대행사·야외 무대인사 등의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6일까지 CGV전주교차로, 메가박스 전주(객사), 전주시네마타운,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등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폐막식은 배우 김민준과 최수현이 사회를 맡아 뜨거웠던 열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어서 폐막작인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서바이벌 패밀리'가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정책 발표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약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분권... 자율성 확보할 것"**  
문재인 후보, 자치분권정책 발표식서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과 국민보편적인 복지사업 국비부담 인상을 약속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였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율 의무화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추진 ▲혁신도시 시중2 사업 시행 등의 실현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갖고 집권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뉴시스

문재인 '일자리' 홍준표 '안철수 '안보' 유승민 '육아 휴직' 심상정 '촛불' 등 내세워

임기 시작 후 과반정당 없어 추경안 국회 통과 어려워 재원조달 방안 '두루뭉술'

하지만,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터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보'를 공통적으로 공약 1호로 내세웠다. 문 후보의 1호 공약은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국방과 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안보를 내세워 '보수적' 후보로서의 면모를 전면으로 내세워 대선에 임한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미국과의 협의 하에 한 반도에 전술해무기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사드를 배치하는 등 북핵미

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 1호로 삼았다. 안 후보 경우 이번 대선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주요 지지층으로 중도·보수층을 겨냥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공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해군과 공군전력 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완료가 제시됐다. 안보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을 계획했는데, 5년간 10조원 가량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방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40석이라는 의석규모와 함께 다른 정당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약 1호로 내걸었다. '육아 휴직 3년 제도'를 대표적으로 내세웠다.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차레로 나눠 쓸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휴직 수당도 월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웠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심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라고 못박기도 했다. 그렇지만 6명에 불과한 정의당 의석으로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유럽 등에서는 각각의 대선후보 확정 수개월 전부터 후보 정책 공약집이 나온다"며 "이에 비해 이번 '조기대선'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열리게 돼 공약 가운데 일부는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용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 : 전주 라운지

# 나와, 영화보자

| 영화 상영 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전주 돔 상영' +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 |

<b>4. 28 Fri 19:00~</b> <파리의 밤이 열리면> + 공연: 페퍼톤스/솔루션스	<b>4. 30 Sun 16:00~</b>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19:00~ <내 사랑> <b>5. 1 Mon 19:00~</b> <리베라시옹 데이> + 공연: 라이바흐	<b>5. 2 Tue 19:00~</b> <마스터> <b>5. 3 Wed 19:00~</b> <로스트 인 파리> + 공연: 멜로망스/치즈	<b>5. 4 Tur 19:00~</b> <리틀 하버> + 스페셜 공연: 요조 "나.아.당.공"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b>5. 5 Fri 14:00~</b> <패트와 매트:> 뚝뚝뚝 대소동>(무료상영) 19:00~ <정글북> + 무료공연: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오웬
--	--	--	--	---

※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